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23.(수) 11:00 < 8.24.(목) 조간 > 배포 2023. 8. 23.(수)

포항 '풀필먼트 센터', 1시간 내 배송시대 연다

- 포항, 창원, 부천 지역 89억 원 예산으로 '풀필먼트 센터' 구축
- 포항 센터 1호점에서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 시작

포항지역 소비자들은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내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포항에 있는 11개 중소할인점(마트)이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8. 21.(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은 산업부가 '21년부터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항, 창원, 부천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化)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포장·배송까지 디지털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에 연 포항 센터의 경우,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전과 비교하여 매출 12% 성장, 이용 점포 수 25% 증가, 취급상품 종류 45% 확대 등 주요 영역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22년 6월 대비, '23년 6월)

산업부는 동네마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이버스토어(주문)', '삼성카드(수수료 우대)', '부릉(배달)' 등 여러 민간 전문기업과 협약을 맺고 풀필먼트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해왔다.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통해 가까운 동네마트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동네마트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재고를 확인하고, 부릉을 통해 1시간 내 배송하게 된다.

동네마트를 운영 중인 유원상 사장은 "이전에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 주문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해져 앞으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산업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최근 유통산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업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에 취약한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는 한편, 대·중소 유통 상생을 위해 규제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4380)
		담당자	사무관	김애경 (044-203-438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